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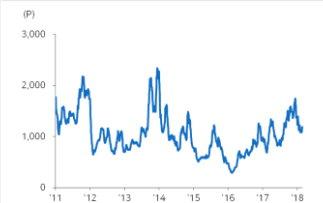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증가 (원)	1D (%)	1M (%)	3M (%)	YTD (%)	PER(x)		PBR(x)		ROE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7,719.8	18.3	130,500	0.4	-3.7	-6.4	36.0	90.9	43.6	0.6	0.6	0.7	1.4
현대로보틱스	7,076.5	21.3	434,500	3.8	-7.0	14.6	14.0	5.9	4.9	0.8	0.7	14.1	14.7
현대일렉트릭	972.6	6.9	95,300	-1.2	-21.6	-17.5	-16.4	9.0	7.9	0.8	0.7	9.3	9.7
현대건설기계	1,728.4	9.1	175,000	3.2	-14.2	0.3	3.6	11.1	8.2	1.2	1.1	11.7	13.9
삼성중공업	3,416.4	18.4	8,760	-1.4	-7.6	-28.8	19.5	55.3	27.4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661.1	5.3	24,950	1.8	15.2	43.4	79.5	10.5	9.5	0.6	0.6	5.6	6.0
현대미포조선	2,180.0	13.3	109,000	1.9	-2.2	15.1	38.5	23.5	17.0	0.8	0.8	3.6	4.8
한진중공업	363.8	6.6	3,430	-0.6	-10.9	-10.1	3.6	69.0	17.2	0.5	0.5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450.9	36.5	58,900	-1.0	-4.5	11.6	8.3	10.4	10.1	1.4	1.3	14.6	13.3
두산반도체	3,428.5	27.4	34,200	-1.3	-7.1	1.7	-4.5	12.5	11.8	1.0	0.9	7.4	7.6
현대로템	1,317.5	25.4	15,500	0.0	-10.4	-17.3	-17.3	20.0	13.6	0.9	0.8	4.5	6.3
하이록코리아	330.1	48.0	24,250	1.5	-4.5	-5.1	7.8	11.0	10.0	0.9	0.9	8.8	9.0
성광케미	376.1	15.9	13,150	1.2	5.6	34.4	31.8	1,162.4	47.1	0.8	0.8	0.1	1.8
태광	393.5	16.6	14,850	-2.3	2.8	40.0	23.2	88.7	43.3	0.9	0.9	1.0	2.1
두산중공업	1,634.2	9.6	15,350	1.7	-5.0	-5.0	0.0	11.8	9.6	0.5	0.5	4.3	5.2
두산인프라코어	2,035.6	13.8	9,780	0.5	-14.2	9.8	12.5	8.7	7.8	1.0	0.9	11.4	11.4
두산엔진	279.4	3.9	4,020	0.0	-5.4	-20.2	9.1	-111.4	88.3	0.5	0.5	-0.5	0.6
한국항공우주산업	4,961.5	17.5	50,900	-1.0	-8.1	-1.7	7.3	34.3	24.6	3.8	3.4	11.2	14.1
한화테크윈	1,554.3	13.9	29,550	4.6	-13.3	-18.3	-16.9	21.4	14.1	0.7	0.6	3.2	4.6
LIG넥스원	1,086.8	10.5	49,400	0.4	-16.1	-16.9	-17.4	19.5	13.8	1.7	1.5	8.7	11.4
태웅	432.2	3.0	21,600	-2.0	-11.5	20.7	11.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41.8	4.8	8,960	-4.4	4.8	84.6	77.4	-373.3	53.0	2.6	2.6	-0.7	5.0
한국카본	282.7	16.4	6,430	-3.3	-12.3	14.5	20.0	48.0	33.2	0.9	0.8	1.8	2.6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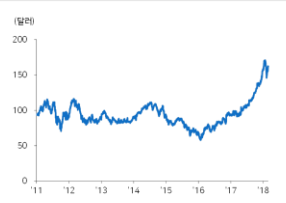
주요 지표 및 차트

Baltic Dry Index(BDI) : +6 1191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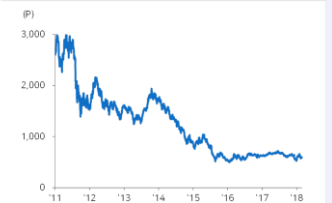
Caterpillar(CommonStock): +1.28 163.69



중국 내수 후판 가격 (CDSPPSPAV Index)



KRX 조선업 지수(KRX Shipbuilding Index)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해운업 재건 '본격화'...현대상선 100만TEU로 키운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뉴스타트 한국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현재 현대상선 선박량은 34만TEU 수준이나, 계획안이 발표되면 100만TEU 육상에 탄력을 붙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2.2만TEU급 컨테이너선 12척, 1.3~1.4만TEU급 8척을 발주를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EBN)

삼성중공업, 올해 첫 해양플랜트 인도

삼성중공업이 노르웨이 Statoil에서 수주한 Johan Sverdrup 라이저 플랫폼 1기의 건조공정을 마치고 출항시켰고, 나머지 프로세스 플랫폼 1기도 오는 12월 인도할 예정이다. 출항한 라이저 플랫폼은 약 6주 후 노르웨이 해상에 도착해 하루 구조물 위에 탑재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BN)

Clarksons Platou Securities tips VLCC newbuilding price rise

Clarksons Platou 증권은 VLCC 시장이 운임약세에도 불구하고, 신조선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함. 최근 철강가격 상승과 달러약세 등으로 원가상승이 신조선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운임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함. VLCC의 신조선가는 전년동기 7.8~8천만달러였으나, 최근 8.4천만달러에 계약됨. (TradeWinds)

STX·성동조선 살린다...정부 구조조정案 곧 발표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STX조선의 경우 인력축소와 중소형 유조선과 가스선을 중심으로 특화하고, 성동조선은 선박개조 및 수리, 선박 일부를 제조하는 블록공장조 전환하는 내용이 검토된다고 알려졌다. (매일경제)

선대 대비 오더북 20년 만에 최저 기록

전세계 선대 규모에 대한 글로벌 수주잔고가 10% 대로 하락했고, 이는 20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척 수 기준으로 현재 글로벌 선대는 95,000척인 반면, 수주잔고는 3,500척 수준으로 알려졌다. LNG선의 기존 선대 대비 수주잔고 비율은 23% 수준이나, 탱커와 컨테이너선은 12% 수준으로 알려졌다. (선박뉴스)

현대중 LNG선 효율 40% 높인 기술 개발

현대중공업이 LNG선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재액화하는 '혼합냉매 완전재액화(SMR)' 실증설비를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힘. 이는 기존 단일냉매를 이용한 완전재액화시스템에 비해 에너지효율을 최대 40%까지 높였고, 설비규모도 줄어들었다고 알려졌다. (동아일보)